

中國의 國內經濟情勢

鄭永祿*

1. 요 지

- 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 기초를 채택한 이래 美國의 지원하에 시장요소를 과감히 도입하는 한편, 海外需要를 적절하게 창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연평균 근 9.8%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한 결과, GDP 수준으로(1995년 기준) 세계 7위, 무역액기준으로는 1978년의 32위에서 1997년에는 8위로 부상¹⁾하였음.
-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 이후 美國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海外需要의 창출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21세기에도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실정임.
- 中國은 朱鎔基總理의 주도하에 海外需要의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만이 고도경제성장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자체진단 속에 정부기구 축소·國有企業 정상화·內需진작에 의한 外需보완 등에 주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2. 과거 中國경제발전 평가

1) 경기순환 흐름

- 鄧小平 집권 이전의 中國경제는 물가안정속의 中速 이하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으나, 鄧小平 집권 이후인 1978년부터 다소의 물가불안을 감수하더라도 고도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
- 이를 위해 국내자금 동원을 통한 투자뿐 아니라, 외국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기순환은 불가피 해지게 됨.
- 현재 中國경제는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순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순환적인 관점에서는 조만간 中國의 경기가 호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延世大 教授

1) IMD(1998),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8 참조 바람.

2) 고도성장요인

(1) 정치적 요인

- 국내
 - 鄧小平의 집권(實用主義로선 추구 강화)
 - 文化大革命의 폐해 자각(경제적 후진성 노출)
- 국제
 - 脫冷戰으로 인한 經濟競爭 加速化
 - 世界化(globalization): WTO

(2) 경제적 요인

- 국내
 - 식량 및 에너지(자원풍부) 자급
 - 저임금
 - 규모의 경제 활용 가능(12억 인구)
 -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鄧小平體制의 안정)
- 국제
 - 냉전으로 인한 China Card 유효: 안보를 담보로 한 美國의 지원
 - 重商主義적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용인: 해외부문의 호조(외국인투자 2위 유치국, 외환보유고 *위 국가 부상)
 - 4NIES의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설비이전, 사양산업퇴출)
 - 화인경제권의 세력강화

3. 현안과제 및 전망

1) 최근의 경제발전 추이

- 中國경제는 朱鎔基總理가 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경기과열을 거의 진정시키는 단계에서 아시아 경제위기를 맞음으로써 소위 軟着陸이 추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었음.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도래 이후 中國은 우선 아시아 경제위기의 본질이 금융위기라는 인식 하에 자국통화가치유지, 내수창출에 의한 해외부문 보전, 정부부문을 포함한 개혁의 가속화, 그리고 WTO가입추구를 통한 多者협상 선호정책 등으로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고자 했음.
- 일부 통계수치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거시지표상으로는 1998년을 고비로 경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분기의 경우 GDP실질 성장율이 8.3%로 정상상태로 복귀하고 있음.

〈표 1〉 中國의 주요 經濟指標 추이

항목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1~3
실질GDP성장률	%	10.5	9.7	8.8	7.8	8.3
공업생산증가율	%	14.3	13.1	11.1	8.8	10.1
소비자물가상승률	%	17.1	8.3	2.8	-0.8	-1.4
도시실업률	%	3.0	3.0	3.1	3.5	-
수출	억달러	1,448	1,511	1,827	1,838	373
수입	억달러	1,321	1,388	1,424	1,402	330
무역수지	억달러	167	123	403	436	43
환율	元/달러	8.35	8.31	8.28	8.28	8.28
외환보유고	억달러	736	1,050	1,399	1,450	1,466
FDI(실행기준)	억달러	375	417	452	456	73.4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8, 및 中國정부 발표자료 종합.

2) 과제

(1) 해외부문의 부진

- 아시아 경제위기 영향 : 中國경제 발전의 견인차는 해외부문이었음. 즉 공공자금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및 외국인투자업체의 교역확대 있음.
- 美國의 신보호주의 경향: WTO 가입논란 및 IPR

(2) 개혁에 대한 저항 조직

- 국유부문의 대량실업
- 권위에 대한 도전(중앙과 지방의 갈등)
- 공무원 대량감축에 따른 불만

(3) 내수창출에 대한 효과 의문시

- 三峽댐 건설로 집약되는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를 통한 내수진작에 병행하여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주택 및 자동차구매촉진을 통한 내수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관념 하에서 소비에 비해 저축을 선호함으로써 민간수요 확대가 예상했던 만큼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환율정책의 문제(RMB 평가절하 가능성)

- 국내 부문의 활성화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부문의 진작을 통한 shock요법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RMB 평가절하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음.
- 이러한 개연성은 금년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위기

가 진정단계로 이행함으로써 中國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음.

3) 전망

(1) 개혁·개방정책노선

- 中國정치무대에서 절대권력자의 존재는 사라짐. 또한, 과거 정책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등장으로 정책노선에 대한 시비는 더 이상 쟁점이 되기 어렵고 개개 사안의 성패에 따라 집권층의 인사이동은 어느때고 가능해진 측면이 강해짐.
- 朱鎔基總理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中國의 개혁 방향은 민감한 재산권 문제를 더욱 개방함으로써 지대(rent)추구의 길을 열되 이해 당사자의 참여폭을 넓히고 관여기관의 수를 줄여 부패를 최소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개혁의 초점은 가격이 아닌 재산권의 새로운 정립을 통한 불하, 합병, 사유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임.

(2) 美國과의 관계

- 中國의 수요자독점지위가 가장 장점(monopsonistic power): 21세기 국제 질서의 축은 美國, EU, 中國이 될 것이며, 특히 美-中 관계가 여하히 전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음.
- 中國은 세계경제에서 유일한 성장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일부 포화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주요설비의 유일한 구매자라는 위치를 십분 활용할 것임.
- 전통적 以夷制夷(divide and rule) : 특히 이과정에서 中國은 美國과 유럽을 적당히 넘나들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임.

4. 韓·中 경제관계

1) 현 주소

- 韓·中 수교 7년째를 맞이한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는 눈부시게 발전, 98년을 기준으로 中國이 우리나라의 무역 3대국이며 투자 2대국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음.
- 우선, 신규시장 발굴이 절실한 우리나라로서는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는 中國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21세기 日本과 中國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
- 극단적으로는 美-中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양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표 2〉 韓國經濟에서의 中國의 位相 符祥

(단위 : 백만\$, %)

年度	總額	美國	日本	獨逸	中華圈	中國
1970	835	47%	28%	3%	5%	0%
1975	5081	30%	25%	6%	6%	0%
1980	17504	26%	17%	5%	7%	0%
1985	30283	36%	15%	3%	7%	0%
1990	65015	30%	19%	4%	11%	1%
1995	125057	19%	14%	5%	24%	7%
1996	129715	17%	12%	4%	25%	9%
1997	136164	16%	11%	3%	26%	10%

2) 과제 및 전망

- 韓·中 협력관계의 핵심이 현지진출투자업체의 제3국 교역참여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中國은 朱鎔基總理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협상 13년째를 맞이한 WTO가입이 좀 더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中國은 자국의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점진적으로 명실상부 하게 국제무역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편, IMF위기를 극복하면서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韓半島가 역내 경제협력에 있어서 여하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임. 이와 관련, 제조업 중 어느 산업이 어느 정도의 역내 분업을 통해, 韓半島에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가령 三星의 경우 한동안 그 활동을 정지시켰던 中國본부를 재가동하고 있음. 이는 일부 제조업체의 과감한 해외이전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음.
- 즉, 韓半島의 최종제품조립을 위한 제조업 기지로서의 기능은 날로 축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만큼 제조업 설비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中國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할 것임.
-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여하한 방안으로 中國에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華僑經濟圈 및 東北亞 경제 협력체 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무역투자의 연계, 南·北韓 관계의 강화, 아시아가치론에 대한 평가 포함) 등 보다 포괄적인 방향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이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분야 발굴과 中國업체와의 동반 협력 및 第3國 진출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임.